



내 이름은 라자로 로사 비올란

스페인외 핫한 레스토랑과
호텔 중 이 사람의 손을 안 거친
곳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라자로
로사 비올란, 바르셀로나와
마드리드를 비롯해 세계 전역에서
러브콜이 끊이지 않는, 요즘 제일
잡타가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다.
운 좋게 비밀 프로젝트로 한국에
들른 라자로 로사 비올란을 만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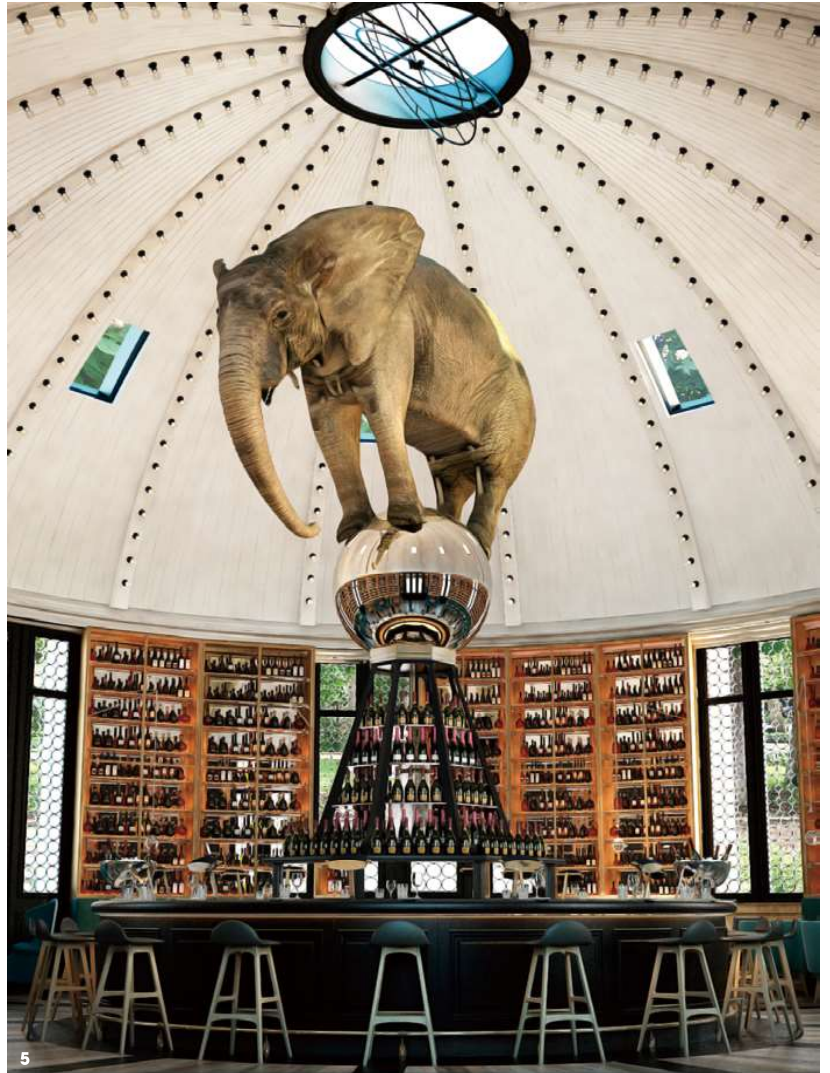
기획 인문사진 이경현 기자
김준영



3



4



5



6

1 사진의 오른쪽으로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벽은 실은 블루 색상의 핸드 페인팅으로 장식한 온리 유 부티크 (Only You Boutique)의 엘리베이터. 2 맛있는 빵 냄새를 맡아야만 체크인 가능한 프락틱 베이커리 호텔(Praktik Bakery Hotel). 3 클래식과 인더스트리얼 콘셉트로 꾸민 비엔나의 레스토랑 버트(Burt). 4 프렌치 스타일에 동양의 터치를 더한 바르셀로나의 레스토랑 세즈 코코(Chez Coco). 5 서커스에서 모티프를 얻어 돔 천장 밑으로 커다란 코끼리 조각을 배치한 마드리드의 레티로 파크 (Retro Park). 6 1957년 만들어진 나선형 계단을 복원한 코튼 하우스 호텔(Cotton House Hotel).